

광주 100년 책임질 전략과제 대선공약 반영 총력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조기 착공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등 20개 이용섭 시장 국회 찾아 강력 요청

광주시가 지역 미래를 책임질 중점·핵심 과제들이 대선공약과 차기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조성식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김성환 공동위원장 등을 만나 8대 분야 20개 중점 공약과제를 설명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앞으로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 대선후보와 선대위에 대선공약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 시장이 이날 요청한 대선공약 반영사업은 '시민이 행복한 더 크고 더 강한 미래 광주'를 위한 과제들로 압축된다.

시는 가장 먼저 광주·전남 상생과 동반성장에 필수적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의 국가사업화 전환을 건의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에는 일자리와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그린 스마트 펀(FUN) 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가 대한민국 실리콘 벨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인공지능 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산업 육성 등을 요청했으며,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조기 착공(예비타당성조사 면제)과 광주-인접 5개 시·군(나주, 화순, 담양, 함평, 장성)을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미래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 기반 확대도 광주의 미래를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대선공약 반영을 호소했다.

관련 건의 사업은 초광역 국가 고가자랑 연구소 구축, 빛그린 산단 일원 '미래자동차 융합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지능형 공업단지 조성, 국가차지문화단지 조성 등이다. 이어 초지능형 헬스케어시티 인프라 마련을 위한 호남권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초지능형 스마트병원 구축, 광주시의료원 설립(예타 면제) 등도 핵심 대선 공약 건의의 사업이다.

이 시장은 이 밖에도 문화수도 광주 위상 확립을 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과 아시아 문화콘텐츠 허브시티 조성, 광주 아시아 아트스퀘어 조성을 비롯한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호남에너지 벨리 구축, 광주전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민주인권기념파크 국가사업 추진 등도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대선 공약으로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과제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길 바란다"며 "광주시민의 숙원과 제들이 대선공약 및 차기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과제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길 바란다"며 "광주시민의 숙원과 제들이 대선공약 및 차기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왼쪽)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윤호덕 기획재정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8대 분야 20개 중점 공약과제를 설명한 뒤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혁신기업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무역협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 'CES2022 LIVE'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이 부여한 권한 나눌수 없어” 이재명 ‘연정’ 가능성에 선 그어

“통합정부, 인재 가리지 않겠다는 뜻 ‘탈모치료제 공약’ 정치공세 지나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이다.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실 박근혜 정부의 모순 실 사건(최순실 사건)은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정부 구성에 대해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면 진영과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모두 알다시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보려 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던 것 같다.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과의 선거 연합·연대를 통한 연정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각에 다른 진영 인재도 등용할 수는 있으나 연정방식은 반대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도.

이 후보는 자신이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가 이번 2월 추경 논의에서 빠질 것 같

다는 질문에는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입장과 여야의 입장, 재원조달의 문제도 있는데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와 관련,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섬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차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공세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돌연 TV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대해서는 “토론은(토론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주체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 주체가 가능한 주체원은 준비하는 대로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동일 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 혁신안을 발표함에 대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선이면)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라며 “물론 집행 권한을 가진, (4선 연임제한이 있는) 지방단체장과 감사·경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도 다르지만, 지역구를 옮겨 정치혁신, 또는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6%·윤석열 28% NBS 조사...안철수 12%로 두배 상승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2주째 오차 범위 밖 우위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다만 이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격차도 약간 줄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 새 두 배로 뛰어올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차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6%, 윤 후보는 28%의 지지율을 각각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윤 후보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격차는 11%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줄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2%로, 전주(6%)보다 두 배로 상승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를 기록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이라고 답한 ‘태도 유보’는 20%로 집계됐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가 이 후보를 뽑았다. 윤 후보는 26%에 그쳤다.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처음 조사 대상에 오른 안 후보가 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 후보가 41%, 심 후보가 34%, 윤 후보가 32%였다. 이 후보의 호감도는 3%포인트 오른 반면 윤 후보의 호감도는 7%포인트 하락했다. 비호감도는 윤 후보가 65%로 가장 높았고 심 후보 62%, 이 후보

56%, 안 후보 54% 순이었다.

대선 후보 중 도덕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르라는 질문에서도 안 후보는 35%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한 달 전 같은 조사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이다. 심 후보가 17%, 윤 후보가 14%, 이 후보가 13%로 뒤를 이었다. 도덕성 평가에서도 윤 후보는 7%포인트 하락했다. 이 후보는 3%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7.9%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